

기층문화의 현장, 巫俗따라 30년

「韓國巫神圖」를 말한다

金泰坤

경희대 교수 · 민속학

‘무당보따리’ 끌고 셋방살이 전전

처음부터 巫神圖를 책으로 엮을 계획이 있어서 무신도를 수집한 것은 아니었다.

巫俗을 연구하려니까 곳을 하는 무속현장에 가서 무속을 관찰해야 했다. 그러나 무속현장을 관찰하며 아무리 치밀하게 조사하면서 사진까지 찍어다 옆에 놓고 보아도 현장감각은 늘 부족해 아쉽기만 했다. 소형 촬영기까지 동원해 굿하는 장면을 영화로 찍어다 놓고 돌려보았지만, 움직이는 동작은 영상으로 포착할 수 있었으나 무속자료가 갖는 현장적 사실성은 전부 담을 수가 없었다. 생각하던 끝에 무속자료를 아예 늘 곁에 두고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 실물자료를 수집해서 내 옆으로 옮겨놓는 일이었다.

1960년부터 무속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하여 굿하는 데만 있으면 모조리 쫓아다니며 무당이 굿할 때 노래로 부르는 巫歌는 녹음하고, 움직이는 동작은 카드에 기록하고, 부채나 방울 등의 실물은 다했는 대로 이것저것을 가리지 않고 수집해 집에 쌓아 놓았다. 이렇게 10여년간 계속되니까 무속자료를 보관할 데가 없어서 걱정거리가 되었다. 대학에 강사로 나가며 거의 어김없이 6개월마다 방세가 오를 때면 셋방을 옮겨야 하는데, 이삿짐의 태반이 ‘무당보따리’였다. 주인집에서는 그 보따리들이 무엇이기에 그다지도 소중하게 다루느냐고 그 내막을 몹시 알고 싶어했다. 그러나 그 보따리들이 모두 무당보따리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날로 셋방을 쫓겨나야 할 판이니 무당보따리를 끌고 셋방을 전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주인네는 못마땅해 하는 무당보따리지만 내게는 더 없이 소중한 것이어서, 언젠가는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한달 동안 먹을 쌀값을 마련해 둔 것을 몽땅 털어다 무속자료 구입에 털어넣기까지 한, 돈으로 따져도 가난한 書生이 한달 동안 입을 봉할 각오까지 해가며 모은 자료였다.

무속 자료 3천여점 무신도 4백점 모아

녹음된 巫歌는 정리해서 책으로 내고 실물 자료는 옆에다 놓고 마음대로 관찰하며 논문을 써서 발표할 수 있었으나, 무당보따리가 점점 늘어나 이제는 개인이 보관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대학박물관에서 전시할 길을 알아 보았다. 대체로 대학박물관이라는 데도 자료만 진열장 속에 넣



宋氏夫人, 巫神 앞의 인간을 유달리 축소해서 그렸다

어 두고 그 자료를 연구하는 데는 그렇게 나처럼 관심을 갖지 않아 인연이 닿지 않았는데, 다행하게도 원광대학교에서 무속을 연구까지 하겠다고 하여 서울에서 무당보따리의 일부를 끌고 裡里까지 내려갔다. 원광대학에 가서 촬영기와 영사기도 장만하고 부족했던 기재들을 장만해 무속연구가 활발해졌는데, 산 넘어 산이라고 여기서도 한계는 있게 마련이었다. 박물관 일이라는 것도 뜻대로는 되지 않아 이제 자료가 이만큼 모였으면 책으로나 정리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여기저기 무속보따리를 끌고 다니는 동안 그 보따리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30여년 동안에 수집된 무속자료가 3,000여점이 되었고, 그중에서 巫神圖가 400여장이 모였다. 무속자료 하나하나가 모두 神聖과 관련된 것이어서 손에 넣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무신도는 특히 무당들이 神의 실체로 직접 모시는 神體이기 때문에 그 근처에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판이라, 그 지엄한 무신도를 손에 넣는다는 것은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니었다. 돈만 가지고도 안되고 돈을 들이면서 5년이고 10년이고 긴 세월 동안 무당을 찾아다니며 신앙이 인정되어 후계자로 믿게 되어야 죽을 때 무신도를 불에 소각하지 않고 물려 준다. 무신도는 신의 실체라 믿기 때문에 때가 타거나 불품 사납게 뒹굴어다니는 것을 막기 위해 닦거나 대를 물릴 후계자가 마땅치 않으면 소

각해버리는 것이 상례이다.

자료를 수집하며 박물관에 쏜던 정열을 책을 쓰는 일로 돌려 ‘한국무속총서’ 全10권을 계획해 책을 펴내던 중에, 이 총서 외로 무신도를 한편의 책으로 엮으면 그 방면의 연구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참에 마침 열화당측과 선이 닿게 되었다.

그러나 막상 책을 내겠다는 출판사측과 만나 무신도를 책으로 엮어내려니까 어려운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수록할 무신도 전부를 천연색 사진판으로 내자니 비용이 많이 들어, 출판사측에서도 오랜 시간을 망설였고, 그러다가 일을 시작하려니까 출판사측에서 요구하는 ‘슬라이드’ 원고가 또 무척이나 까다로워 사진을 찍고 또 찍고, 어떤 것은 네번 다섯번을 연거퍼 찍은 사진도 있다. ‘엑스타크롬’으로 찍은 슬라이드는 ‘인쇄발’이 좋지 않다고 하여, ‘코닥크롬’이 마침 국내에 없어서 그 필름을 일본에 가서 사다가 다시 또 사진을 찍기까지 하였다. 글만 쓰던 내게는 너무나 벅찬 일이어서 중도에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하였다.

책이 나오고 보니, 그렇게 세심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책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자료수집에서부터 출판까지의 그 과정은 이제 아련한 옛이야기처럼 머리 속을 스쳐 간다.

「韓國巫神圖」는 이 땅에서 무신도가 최초



關聖帝君

로 한 권의 책으로 꾸며져 학계와 미술계에 선보이는 것이다. 여기에 수록된 무신도들은 불에 태워지기 직전에 내 손으로 들어와 10년, 20년, 혹은 30년 가까이 잠들어 있던 것을 출판사가 잠을 깨워 세상에 내보낸 것이다. 이런 경우를 두고 九死一生이라고나 할는지.

우리 기층문화의 한 표상

한국의 종교계는 불교나 기독교 일색이어서 무속에 관심이 없고, 종교학계도 그동안 사정이 좋지 못하여 무신도에까지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미술계에서는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종교화로 꼽을 수 있는 무신도를 繪畫史쪽에서 몇마디는 거들었을 법도 한데, 이 방면에 별로 관심을 기울인 흔적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 종교학쪽이 아니면 흔히 말하는 民畫 쪽에서라도 무신도는 웅당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했을 법도 한데, 이 쪽에서도 무신도는 별로 비중있게 다루어진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무신도는 그들 속에 묻힌 ‘지하문화’의 일부로 그 거대한 외래적 표층문화의 압력에 못이겨 햇빛을 보지 못한채 언젠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 갈 운명이지만, 이제 그 한 가닥이 그래도 책으로 남게 되었다.